

“제2 영일만 기적” 포항, 디지털보국 담금질

경북SW진흥본부

전통 제조산업, 지역총생산 42% 차지
포스텍 등 4개대 SW 인재 年 2800명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벤치마킹
과기·산업 인프라+위케이션 결합

포스코체인지업그라운드 113곳 입주
지곡벤처밸리 중심으로 혁신 거점 확산



◀11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포스코체인지업그라운드(왼쪽)와 소피아 앙티폴리스 연구소 전경.

대구·경북은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소재·부품·철강 등 전통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녹여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하지만 정주여건 부족, 청년이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2년 이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권이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GRDP 비중은 불과 8.4%이며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48.1%)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강력한 제조산업 인프라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NFC: Non-Fungible Capability)’을 손에 거머쥐고 있음에도 지역 경제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경북지역 강점인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쇠는 ‘디지털 혁신’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 극복 방법으로 지역에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에 디지털 산업업 입지를 발굴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준하는 디지털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와 대구시 역시 지역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경북도는 포항지곡테크노밸리(가칭)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에 디지털을 융합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경상북도 종합계획 2021~2040)하기로 했다. 대구시 역시 지역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SW) 집적지 대구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 거점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역소멸에서 벗어나고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으로써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혁신기관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지역 디지털 생태계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기술 혁신 리딩기업 8곳의 숨은 기술력을 들여다본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코로나19 사태, 울진 산불, 태풍 힌남노 피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경북 지역 경제는 현재 위기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특히 경북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업적 기반(22.6%)이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포항과 구미, 경산을 잇는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특구, 산업단지 등 과학기술 및 산업 인프라가 산재한 곳이다. 전기·전자정밀기기, 비금속·금속, 기계·운송장비 등 전통 제조산업이 지역총생산의 41.9%(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역량이 풍부하다. 특히 포항은 감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체인지업그라운드, 방사광가속기 등 경북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제조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에 최적 입지가 바로 포항이다. 대기업(포스코)에서부터 철강관련 중소·중견기업, 방사광가속기라는 거대 기초연구시설, 포스텍(포항공대), 기업지원기관이 모여있는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는 자타

경상북도 디지털 생태계 조성 비전·목표·전략 -2030 Hyper Digitalization 경북-



가 공인하는 클러스터 몰모델 공간이다. ‘제철보국’으로 영일만 기적을 이룬 포항이 ‘디지털보국’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포스텍과 한동대 등 4개 대학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된 젊은 소프트웨어(SW) 인재는 28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지역을 이탈하고 있고, 지역에서 출발한 디지털 기업 역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혁신 거점화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더 절실한 이유는 산업구조에 있다. 포항은 국내 철강산업을 이끌어 온 도시답게 제조업이 38.9%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SW, 이차전지, 바이오, 신

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신성장산업 간 융합을 통해 디지털 산업업 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은 경북 거점 SW 산업진흥기관 경북SW진흥본부가 맡고 있다. 몰모델 프랑수아 동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벤치마킹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관광도시 니스와 국제 영화제 도시 칸 사이에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소도시지만 글로벌 최고 수준 첨단과학기술 클러스터가 구축된 곳으로 유명하다. 연구소와 대학, 기업이 밀집한 포항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포항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과학기술 및 산업

인프라와 정주여건으로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위케이션(일과 휴가)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최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 인큐베이션이 가능한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도 조성돼 있다. 체인지업그라운드에는 현재 타지에서 본사를 이전한 12개 기업을 포함, 총 11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의 회사 가치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항이 조성할 디지털 혁신거점 비전은 ‘기업이 모여들어 일자리가 넘치는 디지털시티-포항’이다. 우선 1단계로 포항 지곡벤처밸리에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한 뒤 안동, 구미, 김천, 경산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이미 지난해 경상북도 종합계획을 발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경상북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은 거점 구축을 시작으로 인재양성과 정착, 초거대 AI 실용화, 제조산업으로의 전과가 핵심이다.

박수영 경북SW진흥본부장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 혁신”이라면서 “지역에 디지털 거점을 반드시 구축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hn@etnews.com

“ABB 선도” 대구수성알파시티, 성장거점 육성

〈AI·빅데이터·블록체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계획 핵심
수성나들목 편리한 교통 환경 장점

조성 5년 만에 SW집적단지 성장
입주 예정 포함 총 240여곳 달해

최근 5만6000㎡ 용도 변경 마쳐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도 검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수성알파시티는 국가 대표 디지털 혁신 거점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한 미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우수 기업들이 하나씩 모여 이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지난 2021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대구지역 SW산업진흥기관에 지정됐다.

디지털 혁신 거점은 대구가 추진하는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계획의 핵심이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 등 대구 주력산업에 디지털을 융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추진 중인 수성알파시티는 신대구부상고속도로 수성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지난 2017년 DIP가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첫 입주한 이후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일궈냈다.

수성알파시티에는 현재 ABB를 대표하는 국적 ICT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기업 132곳을 비롯해 기관과 협회를 포함하면 139곳이나 된다. 입주가 확정돼 조만간 입주할 기업까지 포

함하면 총 240곳에 달한다. 인공지능(AI) 비정형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우경정보기술, 응용SW개발 전문기업 데이터뱅크, 글로벌 게임기업 엔젤게임즈 등 매출 100억원대 이상 기업부터 SW, 콘텐츠 등 미래 유망분야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SW융합테크비즈니스센터, 빅데이터활용센터,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제작거점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영남소프트웨어 시험센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등 기업지원시설도 11개나 입주했다. 조성 5년 만에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 규모 SW집적단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 성장은 기업투자자로 이어졌다. 최근 수도권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잇따른 투자의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고기능성 생활농약 및 화장품 개발사 엠엘이 노베이션은 중국, 싱가포르, 영국 등 4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했고, 스위스 배가랩SA로부터 5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하며 본사와 R&D센터를 수성알파시티로 이전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입주를 앞둔 기업도 잇따랐다. AI 기반 VR·AR 교육콘텐츠기업 한국메타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AI솔루션 전문

기업 비즈니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기업 케이씨타운 등이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역외기업 유치도 눈에 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텔레칩스는 지난 1월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수성알파시티 내 1039㎡ 부지에 337억원을 투자, 대구연구소를 건립한다. 텔레칩스는 향후 차량용 통신칩,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개발에 나선다.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과 영상처리 기술 전문기업 오토아이티, 베이리스도 본사를 수성알파시티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이다. 그 외 전기차 충전원스톱 솔루션 기업 대영채비, 치과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엠지뉴턴연구소, 자동차부품·영상기기 제조사 아진산업연구소, 전자부품 제조사 대영전자연구소 등이 입주를 완료했거나 확약한 상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가 급증하자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번째 주인을 찾지 못한 의료시설용지 8만2000여㎡ 가운데 5만6000㎡를 최근 지시기

반산입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나머지 의료시설용지 2만6000㎡도 올해 안에 용도변경을 완료, 1단계 확장계획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최대 63만㎡ 규모 제2 수성알파시티를 조성하는 2단계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DIP는 올해 과거정통부가 공모하는 디지털혁신거점(SW진흥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거점 기반 조성고 고도화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지역이 배출한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ABB압축형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시범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현 DIP 원장은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수성알파시티에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ABB산업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경험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